

## 통일교육에 있어서 북한이해의 관점과 방향

박 찬 석

(서울교육대학교 강사)

---

### 《 요 약 》

---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방면에서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작업이다. 우리 남한 사회의 시민들은 한반도에 평화적 공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민족 문제에 관한 비판력과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에 통일교육 관계자들은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북한 분석을 강화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북한이해의 실천은 현실의 문제 해결을 통해 통일의 비전을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가지게 되며, 우리 사회와 북한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이해에서의 평화 적용은 교육 수요자의 안정된 마음과 평온한 자세에서 시도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미래 지향적 안보 환경 인식과 민족 공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통합의 실천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야 한다. 이제, 북한 이해의 연구는 전반적인 북한 사회의 광범위한 인식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북한의 실상을 배워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남북한 화해와 협력, 북한 이해, 평화교육, 민족공조, 열린 민족주의

---

## I . 서론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방면에서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통일교육원, 2001: 7).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동정과 관심을 벗어나 올바른 '북한 이해'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은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 이해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고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북한 이해교육은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혼재되어 있는 바, 객관적인 북한 이해에서 그 조정과 표준이 요구된다. 그 동안 북한 이해는 외재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상황을 비난하는 측면으로 강조하였고, 내재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시각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하였다. 북한의 특수한 현실을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외재적 입장이나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려는 내재적 입장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성은 북한 연구에서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그 작업들은 계속 진척되어 북한의 현실과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북한을 ‘같은 동포’와 경제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현실 인식을 기초하는 ‘북한 이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통일교육원, 2003: 3-5). 북한 인민들은 북한 이외의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할 정도로 폐쇄적이다(민성길 외, 2002: 135-140). 때문에, 통일로 가는 길은 남북한의 이해가 기초되어야 함에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모르고 있다.

또한 북한 역시 통일문제에 대해 접근에 있어서 북한의 노동당이 요구하는 입장 이외에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긴장 높은 무기력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통일’로 가는 길은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보편적인 민족주의의 인식과 비판력을 갖는 동시에 ‘북한 이해’의 올바른 관점이 요구된다.

한편 2002년 말부터 남북한의 난제인 ‘북한 핵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시기에 우리 사회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성숙한 민족 문제의 올바른 접근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올바른 ‘북한 이해’를 통해 북한 사회를 올바로 인식하며, 우리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도 우리와 한민족이라고 막연한 인식에서 벗어나 더 치밀한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북의 물이해를 극복하는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혼란의 진원지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Ⅱ. 북한 이해의 올바른 전제

‘북한 이해’는 결국 남북의 만남이나 통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시도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올바르게 예측하고 대비하는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북한이 말하는 ‘민족 공조’에 대한 올바른 진위를 파악한다면, 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북한에 관련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민족 문제 접근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과의 단절이나 소원을 통해 민족 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논리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통일부, 2003). 그렇다고 해도 한미 공조를 미국의 한반도 개입이라고만 인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해 반발하는 민간단체의 목소리는 우리의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민족 공조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이러한 민족 공조에 대한 관점은 보다 현실적인 입장이 부가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한미 공조의 변화요구보다는 상황적인 한미 관계 개선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에 따른 한미관계의 변화는 일단 재검토하면서, 이상적인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황들을 검토한 후에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사회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호혜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지지를 얻음과 동시에 남북 관계에서 추진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조한혜정·이우영, 2000: pp.137-139).

이에 ‘남북 이해’의 올바른 전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진척을 위해서 우리는 북한 이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을 갖고 대비하여야 한다. 이전의 김대중 정부는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가시적인 무력 도발이나 일방에 의한 통일 야욕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문제는 김대중의 문민정부는 북한에 대한 비밀스러운 송금이나 교류를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켰지만,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을 증폭시켜 급기야는 ‘대북 송금’ 특검을 실시하게 하였다. 즉, 현 상황에서의 남북한 평화정착, 화해와 협력을 통한 노력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내부적 논의에서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이해의 기준은 올바르고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북한 사회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면서 북한의 전반에 대해 배워야 한다.

둘째, 학교현장에서는 북한 이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현실과 변화에 대해 객관적이며 비판적인 관점을 적용시켜야 한다. 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낭만적인 민족주의적 감상으로 북한을 접근하는 것에 경계하여야 한다.<sup>1)</sup> 학생들은 어떠한

1) 서울 송파 G고교에서 2002년 12월에 북한 핵에 대해 글을 써본 사례를 볼 때, 한 한글의 80% 이상이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핵은 만들어야 한다. 핵이 있어야 힘 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고, 안전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다. 핵이 있으면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고 남과 북이 통일하면 그 핵이 우리 것이 되니깐 우리는 평 먹고 알 먹고이다. 핵이 있으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압박을 안 받고 외려 다른 나라에 압박과 위협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핵이 필요하다. 핵이 생기면 바로 인생역전이다.

다른 입장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핵문제에 대해 반대한다. (핵 개발 반대) 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미국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며 굽신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와 북한은 아직미국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열세이다. 일단 핵 개발을 하여 미국에게 위협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서도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우선 ‘악의 축’이란 이미지부터 벗어난 뒤, 남북한이 협력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해져 그 다음 핵을 개발하면 그 때 비로서 남의나라보다 가역하고 남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

기본인식으로 북한 이해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2002년 미군 장갑차로 인한 여중생 사망 사건 문제 이후 미국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학생들의 글 속에서는 벌써 민족공조에 대한 강한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남북한은 신뢰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해에 입하는 교사들의 입장은 북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의 구성과 자료의 활용, 그리고 수업진행 방식을 통해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올바른 민족 공조와 한미 공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대안적인 면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이해 교육 관련 교사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서지 말고, 올바른 남북 관계나 민족 공조 그리고 한미 공조의 입장을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으며, 전교조의 통일위원회 교사나 통일교육 관련 교사들은 언론과 인터넷사이트 및 개인 보관 자료에서 발췌 구성한 북한 이해 자료를 실제 제작하여 교실에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북한 이해 자료일 수 있으나, 그 접근에 있어서 교육단체의 통일관을 부각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다소 올바른 북한 이해교육으로 전개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단체의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료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성의를 보이면서, 북한 이해교육이 감성적인 측면, 당위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현실적이며 대안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다양한 입장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즉, 교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 자료들이 그 활용성에 있어서 다소간의 인식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통일교육원, 2002).<sup>2)</sup>

### Ⅲ. 북한 이해의 올바른 인식과 그 해결의 방안들

분명 교사들의 자율적 수업진행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통일교육은 그 성격상 명확한 방향에 대한 교육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북한 이해교육을 시도하는 교육 기관이나 학교는 자체적인 작업에 대한 논의를 보장할

---

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우리 나라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가 식량을 제공해 주고, 소도 줘듯이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북한을 도와 주어야 한다.

- 2) 아직도 많은 교사들은 북한 이해교육을 꺼려하는 것은 그 자료의 신빙성에 염려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저축 여부에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사진을 보더라도 북한의 선전용으로만 인식하려는 경향과 우리 정부의 대북 우위에 입각한 사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9년에 발표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대한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교육연찬이 필요하다.

필요는 있으나, 통일교육 내용에 있어서 민족 통합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쟁점화 되는 남북한 문제의 내용을 교육에 접근시키는 의도에는 분명한 책임과 한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 이해교육에서 공유되어야 할 기본바탕은 지금보다는 보다 더 다양한 북한 정보에 대해 분명하게 검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논의를 다음의 논점에서 시도하고자 한다.

## 1. 북한이해, 치밀한 접근의 논의 수렴

우선 통일문제는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상황의 이중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실례를 들면, 우리 사회 안에서도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 당국에 대해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나 북한 사회는 남북의 차이에 대한 인정하며, 남북한 각각의 사회가 작동되는 원리나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북한 사회는 우리에게 비해 폐쇄적이며 유일 사상적인 입장에서 있다. 아직도 북한은 그들의 목표대로 자존심을 구기지 않는 방향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는 북한 스스로 한반도의 주도적 위상을 갖는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나치게 북한은 그들 사회의 입장만을 관찰하려는 의도를 남북 대화에서도 표방한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에 대해 우리는 치밀한 인식 구조를 갖고, 남북한 변화의 뒤편에 대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들은 여기에 적응해 가고 사회와 세계 체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화 사회로의 인식이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는 다양성과 창조성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 이해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북한의 현안인 유일 사상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이해교육은 다양한 가치관과 정보를 가지고 북한의 인권이나 우리의 인권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대안과 정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 주어야 한다. 북한이해교육은 북한이 당면한 식량문제나 경제위기가 단순히 당위적으로 ‘미국의 팽창정책’에 근거하지 않음을 학생들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세계와 함께 보다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 주는 우리의 현실적 판단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진정으로 체제 우월성의 대결이나 미국과의 대립에서 벗어나 대화와 점진적 통합의 길에 알맞고 미래 비전의 모습을 만드는 노력이 요구된다. 대화와 점진적 통합은 상호 존중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고 존중과 의사소통은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 그러한 공감대는 달라진 남북한 사회 문화가 어느 정도 통합되었을 때 가능하다.

통일교육은 보수나 진보의 이념적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문제 해결을 찾아 주는 교육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래서 북한은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이해교육은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 방법적 측면에서 폭넓게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단순히 미국의 팽창 정책으로 북한의 핵을 용인하거나 북한의 사활을 막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북한이 개방화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통일교육에서 터부시되는 사안에 대해 보다 본격적으로 대화와 의사소통을 하고 그 에 대한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주한 미군 문제나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우려와 분노는 차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관계나 동북아 정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폭넓게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교육적 인식의 확대는 우리 사회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이질감 해소가 관건이다. 이러한 노력은 자기 이념의 지향보다는 자기 이념과 타인의 이념 속에서 통합을 이끄는 것이다.

통합을 향한 노력은 북한 이해교육의 결정적 역할과 문제의식을 제공한다. 오늘날의 남북한 사회는 상이한 사회체제를 지향하면서 건설된 사회이기 때문에, 각각 사회의 정당성을 기초로 한 통일문제 접근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상당한 남북한간의 견해 차이에 대해 우리가 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북한 이해교육은 이러한 ‘상황의 이중성’을 무시하거나 확대하지 않는 이중적인 성격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이 요청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남의 생각을 교류하면서 통합적인 설득과 포용력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 이해교육은 각자의 생각에 지나치게 빠지는 극단적인 인식을 보편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내용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사회, 문화 그리고 학교생활을 배울 때에는 그 사회의 정서를 배우고 동시에 극단적인 면이 많으나, 일반적인 보편성을 이야기하여야 한다. 북한 사회가 안고 있는 인권문제나 탈북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북한 내부적인 환경이나 외부적인 여건을 통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 남북한 관계가 2000년을 정점으로 악화와 진척을 거듭하면서, 한편에서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우호적 관점과 입장을 진척시키려는 노력과 그에 반하는 비판적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북한 이해교육은 시기에 따라 북한 사회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강조하다가도 남북한 및 남한 사회의 대북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시기에는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진척 속에서 북한 이해교육을 접근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박찬석, 2002, pp.115-116).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북한 연구가 어떠하였는가? 우리 사회는 연구자의 정서적인 대북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인식에서만 머물렀다. 즉, 일각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북한 사회에 대한 대립적이며 적대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진보 성향

의 사람들은 북한 사회에 대해 당위적인 민족 통합적 입장을 부각하여 북한에 대해 극단적으로 우호적으로 보는 듯한 입장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의 현상적 의미만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원인을 통일부는 북한 체제에 대한 정보나 자료의 제약, 북한 연구의 객관성 문제, 기존 연구의 정치영역 편중 등을 들고 있다(통일부, 2002: p. 9).

따라서 우리는 주관적 인식이나 편견에 기초하여 감정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 사회의 정치적 특성을 보여줄 기본적인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 포괄한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보는 몇 가지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객관적 입장에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사회의 이중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적 바람을 가지기 전에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해하며, 북한의 정치 선동적인 측면을 감안한 분별력 있는 북한 인식의 자세가 필요하다. 즉, 북한 이해의 순서는 사실과 객관성 확인, 비판적 인식을 통한 당위적 인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북한 이해 교육의 출발은 사실과 객관성의 확인을 기초로 하여야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의 기초는 절대적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는 북한의 정보에 대해 사실을 판단하는 작업을 심도 있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이해는 그 사실과 객관성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 보편타당한 입장 속에서 대안을 제시,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실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볼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한 열정만으로 북한을 끌어안으려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무조건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도 곤란하다. 북한은 그들 특유의 주체 사상으로 50여 년 간 지탱한 나라이다. 북한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심대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 대해 기존 인식을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는 북한 인식 틀에서 당위적 인식을 시도하여야 한다. 많은 북한 연구 학자들은 객관적인 인식보다는 당위가 앞서기 때문에, 북한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내외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면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북한 주민의 생활양태를 기준으로 그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되,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한 당위적 판단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통일교육 관계자들은 북한 이해에 대해 학생들이 순차적인 인식을 통해 왜곡과 허상을 벗어나 실제적으로 보는 눈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본질적으로 북한 이해교육은 학생들에게 북한 사회의 부분과 전체를 파악하는 교육과 연구의 틀이 구성되어야 한다. 북한을 이해하는 데에는 북측 사람들의 논리와 사상에 대해 기초를 두면서, 한편으로는 비

관적으로 인식하는 내재적-비관 논리가 필요하다(이종석, 2000). 북한에 대한 이해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북한 이해의 준거 틀과 북한 변화 속성에 대한 올바른 좌표를 갖고 접근한다면, 민족 통합적 입장을 실천하는 길을 가능하게 조성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추진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우리 학생들의 통일 의지를 고양하는 한편, 올바른 북한 이해를 시도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 2. 평화, 광범위한 인식 필요

한반도의 평화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화해와 협력 정책으로 금강산 관광을 육로로 가는 남북 관리 구역내 민간인의 군사분계선 통행과 관련된 남북 군사당국간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차츰 현실화된 사건이며, 그로 인하여 남북한 화해와 협력 과정이 조성되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남북한은 정부와 민간 단체간의 교류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북한 이해교육은 평화에 대한 현실적인 입장과 이상적인 입장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남북한 문제는 ‘총칼을 보습으로’라는 단편적인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현실적인 관점이 요구된다(이기택 외, 1997). 즉, 우리 국민들은 국제주의적 상황에서 북한 정권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평화학자인 요한 갈통은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미국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반도의 안정이 문제라면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 김대중 전대통령조차도 미국이 왜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주한미군은 북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관심은 세계를 어떻게 하면 미국에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요한 갈통, 2003: 118). 그리고 그는 “북미 갈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서로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존중과 인정이다. 북이 핵 카드를 꺼내면서까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북미불가침협상이 아닌가.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곧 북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상당한 의의를 두는 국내 학자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북한의 이해나 미군의 인식 속에서 우리 사회는 안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에 대해 이중적인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북한의 선진을 당연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나 핵 개발 의지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른 자위책이면서도 그들의 사상과 체제에 대해 강한 내부적인 핵개발 의지가 담겨져 있다. 2000년 이후 북한은 평



화적이며 남북 화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미 협상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취지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방주의적인 입장의 북한에 대한 우리가 배워야 할 평화 교육은 다각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한반도 군사 문제에서 남한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 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에 앞서 북한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변 국가, 특히 미국의 승인을 받고 싶어한다. 그 사례는 2003년 4월 베이징 회담에서 한국의 배제를 북한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에서 파악될 수 있다.<sup>3)</sup>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사실적인 검증을 통해 구체적 대비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한반도 인식은 과거 50여년 동안 남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던 상대방에 대해 단기간에 적대적 인식을 벗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북한에 대해 신뢰감이 약하다. 그렇기에 북한을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하려는 근거도 상당히 타당하다. 따라서 평화교육 역시 북한에 대한 양면적 이해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즉, 평화교육은 남북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혼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북한 이해교육은 부조건적인 반북 교육이나 일방적인 북한 이해교육이 아닌 ‘북한의 논리나 상황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평화교육은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자기 안정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한반도의 안정을 기존의 상황에서 찾아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된다. 현재 남북한은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바, 그 원인은 북한, 한국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고조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갈등 고조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의 논리만을 관철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불확실한 측면을 갖는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가중되는 이 때에 평화교육적 접근은 남북의 갈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현실적인 북한 핵에 대한 의지를 즉각 중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 공조’를 내세우는 논리에 말려 들어가 ‘주한 미군’의 문제에 대해 잘못 인식하면, 그것은 공유할 수 없는 ‘민족 공조’에 따른 더 많은 대가를 고착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그 동안 남북한 화해와 신뢰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반성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이해 교육은 늘 ‘현실’과 ‘변화’를 상정하며, 그 속에서 현실과 변

3) 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북한 핵문제는 전적으로 북미회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한 입장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될 수 있으나, 한반도의 핵이 우리 남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갈등한 것이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우리 현안에 대해 엄밀하게 인식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남북 문제는 민족 공조를 말하기 전에 그 구체적인 남북 상황의 기초 위에서 인식하는 현실감이 당위나 지향 망안보다 비중을 더 두어야 할 것이다.

화에 대한 균형적이며 객관적인 인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그 '현실'에만 얽매이면, 북한 이해교육은 통일과 평화의 긴 여정을 막는 일이며, 단순한 북한 이해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또한 '변화'에만 집착하면, 북한 이해교육은 남북한의 현실적 긴장 상황을 축소하고 북한의 실체와 민 관념적인 북한을 확산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북한 이해는 군사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문화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망라하는 접근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대상으로 남북한 관계는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전의 갈등과 대립의 시기에서 갈등과 대립 그리고 교류로 더 복잡해진 구조 속에서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론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양안 관계에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과 대만으로 복합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대만은 경제 교류, 인적교류를 지속하고 있다(이영길, 2001, pp. 67-69).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관계 역시 긴장과 화해 사이를 오가며,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단편들은 혼란 없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북한 이해교육은 평화에 대한 강한 현실적인 근거와 이상적 전망 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즉, 북한 이해교육은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틀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북한 이해교육은 일방적인 대북 안보교육을 지양하자는 것이다. 사실 평굴현장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통일을 상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 정권은 우리 사회에 대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망각해서 안 된다. 그 이전에 우리 사회도 남북 긴장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북한 이해교육은 남북한 서로의 소모적 긴장조성을 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민족 화해와 협력 단계로 진일보하는 노력과 동시에 민족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책을 견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3. 민족문제, 보편적 입장으로의 진척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정상회담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주적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나치게 해석하면 북한이나 우리의 일부 세력이 주장하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주적인 해결은 우리 민족만의 의지를 관철하는 ‘폐쇄적 자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관계국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열린 자주’로 생각해야 한다.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미군의 전쟁 억지력에 대해 강조점을 두는 부류도 많이 있다.

그들의 입장은 미군 철수 반대를 취한다. 이러한 형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인식이나 통일인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진보 세력이나 보수 세력이 대화와 타협을 북한과 할 수 있음을 감지할 때, 남북한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민족공조는 보다 정확한 이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평화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민족 공조는 과대 포장되거나 과소 평가하려는 경향에서는 불안한 것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은 갈등이 발한 미국의 이익을 위한 군대 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주한 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단순한 경제적 이익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주한 미군을 인정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서보혁, 2003).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보는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러한 원인 제공을 소위 말하는 국내 보수 언론, 미국의 장난이라는 인식은 너무 편협 된 시각이다. 한편으로 미국 정가의 매파의 논리가 위험한 것도 있으나,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 역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일성 사후 북한의 움직임은 서서히 세계화시대의 한반도의 위상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다(이종석, 2000, pp. 124-125). 그럼에도 9·11 테러 이후 세계는 테러와 반테러 세력으로 나누어지는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미국은 '악의 축'으로 이란, 이라크와 북한을 지목하면서 미국 중심의 반 테러 연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2002년 말 핵 개발 의혹에 대해 부인도 하지 않고 핵 원료 봉인도 해체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2002년 말 현재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설정하여야 하는 시기이지만, 아직 북미간의 구체적 진전이 없고 전운이 감도는 갈등을 고조하고 있다. 이는 곧 이 지역이 역사적·지정학적·이념적 갈등이 가장 심한 지역임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면에서는 상호협력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즉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목표도 동시에 추구될 때 안정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지나치는 의제 배경 구호는 정정하는 입장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보여 주는 반미 현상은 한미행정협정(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 in Korea: SOFA)에 대한 일정한 변화를 추구하려는 입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올바른 한미관계 조성은 우리 시대의 중대한 사안이면서 동시에 자유, 민주, 확장을 위한 도덕적 문제이기에 새로운 세계 조류에 알맞게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평화는 많은 힘의 원천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역설도 통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주한 미군의 인정은 우리의 손실 이외에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갈등의 인식은 보수적 측면에서

보면 ‘무정부적 평화론’으로 또는 ‘평화부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보수세력의 우려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그것을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북한 이해교육은 그 논리가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불안정하게 이루어진 남북 교류로 형성된 우리 사회에 형성된 민족 공조는 아직까지는 한미 동맹을 대신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대화 채널이나 공감 면에서 민족 공조를 주장하는 북한은 한미공조의 대화 채널이나 공감 면에서 불안정하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민족 공조’가 지나치게 편협한 논리로 ‘민족’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대결국면으로 보는 민족 공조와 한미 공조 사이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대남 인식의 진향적인 변화를 갖추어야 하며, 열린 민족주의에 대한 각오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한 움직임을 형성하는 반미 입장도 그러한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 국민 중에서 현재 남북 대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57%가 미군 감축을 원한다.<sup>4)</sup> 그것이 ‘반미’라는 인식은 너무도 편협한 생각이다. 우리 사회는 주한 미군의 전쟁 억제력보다는 우리 사회의 주체성을 갖춘 안보력을 원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인식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 논리는 민족 우선이나 외세 우선이라는 단순 논리로 민족문제를 바라보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즉, 민족 주체성을 갖고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튼튼한 안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층 평등한 한미 공조이며 한층 신뢰할 수 있는 민족 공조인 것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효과적인 평화 유지책이며, 한미공조와 민족공조에서의 방향 찾기에는 민족 분단 문제를 평화적으로 유지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통일의 진척을 향한 평화 조성은 우리 내부의 보수와 진보의 투쟁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통합적 방향 모색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북한이해교육은 남북한의 평화를 진척하는 내용들을 발굴하다보면, 민족 주체성과 국제주의의 갈등을 조화 모색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북한 이해 교육의 내용 구성

### 1. 북한 이해교육의 목표

북한 이해교육은 학교통일교육의 북한 현재의 모습과 변화를 파악하여 통일 의지를 심어

4) 중앙일보, 2003년 2월 21일 10면, “노 북공격 반대발언 미 대북협상력 악화”의 내용 중

주는 것이다. 이에 통일 의지를 배양하려는 노력은 정의적 특성에 중점을 둔과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일견 파악할 수 있는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북한 이해교육은 오늘날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세계 질서,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 그리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목표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북한 이해교육은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도록 새로운 방향과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의 북한 이해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규범적 접근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객관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목표는 북한 사회의 실상과 변화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한반도 주변의 역동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초 위에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내용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행동을 보다 강조하는 실천적 접근법’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둘째,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려면 보다 많은 교과에 걸쳐서, 특별활동을 포함하는 교육활동에서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다루도록 확대해야 한다. 통일 관련 교과를 모든 교과로 확대하여 각 교과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지식, 가치관, 태도를 포함하는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포괄하여 다루도록 해야 하며, 교과 이외의 각종 과외 활동을 통하여 북한 이해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의 단체활동, 현장학습, 유적지 답사와 같은 행사활동에서도 백두산이나 금강산 체험을 하게 한다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북한 이해교육의 내용과 소재는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문화 전통문화, 관습, 의식주 생활, 가정 생활과 가족관계, 학생들의 생활, 또는 자연 지리나 관광 자원 등-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 내용은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기에 일상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서 체험의 대상이거나 실천의 내용이 될 수 있어 학교통일교육과 관련지어 볼 때, 북한을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갖고 비슷한 생활을 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도 막연하고 거창한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2. 북한 이해교육의 내용

북한 이해교육의 내용은 주제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해는 단편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학습이 실시되는 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수업 한 시간에 논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로 시작하여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북한 이해교육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주장과 개방된 논의를 허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

적으로 문제 사태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남북한의 차이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은 우리와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강만길, 2000). 학생들은 북한 주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길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 이해교육의 내용은 교과서의 지식에 고정될 필요는 없다. 앞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은 북한의 현실에 관한 사실적인 정보와 통일문제와 관련되는 시사 정보 등을 다양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고정된 정보로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은 통일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본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범주를 삼되, 교과서 지식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융통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북한 이해교육의 적용

#### 가. 보편적인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이제 보편적인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북한 이해교육은 그 의미를 확대 지향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북한을 ‘그들의 침략 의도’에 따른 군사주의적 국가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따른 대비를 국방력의 강화를 통해 진척하고 있음도 알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해교육은 대북 안보교육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 진정한 시민교육을 통해 북한의 현실성에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민족주의로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북한 이해교육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민의 의무를 통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시민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을 논의하는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보에 대한 절실함은 바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를 근거로 하여 학생들 중에서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회의를 가지려는 경향을 팽배하게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올바른 북한 이해교육은 우리 상황에서 진정한 평화적 자세를 학생들이 가지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소산은 바로 민족에 대한 의지가 가름한다.

우리의 민족은 현실적인 존재이다(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1999). 우리가 민족 문제를 생

각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우리민족 문제는 우리의 정치적인 삶, 경제적인 삶, 사회적인 삶, 문화적인 삶을 단절시키고 축소시킬 것이다. 아니면 축소된 채 아무런 의식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서로 이간질 당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한 길이니, 민족 통일을 위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얼마나 반통일적인 처사인가? 이제 북한이해 교육은 남북한 주민이 함께 공존과 대화 그리고 화해를 하기 위한 민족적 자각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적 공감을 형성하여야 한다(강순원, 2000).

즉, 북한 이해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사회인에게 민족 통일을 지향하게 하는 노력이며,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해교육이라고 명명되는 모든 활동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통일 및 북한에 관심과 교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북한 이해교육은 다양한 입장을 내부적으로 변증법적 강화를 통해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가 이제는 중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통일교육은 민족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민족은 다소 보수적인 내용으로 상당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자체가 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이향규, 2001, pp. 66-68). 그리고 민족을 통해 보수나 진보 양자들이 우려하는 입장들에 대해 충분히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김유남, 2000, pp. 389-422).

## 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북한 이해의 설정

북한 이해교육은 통일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삶의 양식으로 적극적인 민족 이해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www.acdpu.go.kr)에서 실시한 2002년 6월 조사에 의하면, 더욱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중고생들의 통일관은 조사에 참여한 중·고등학생 중 58.5%만이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고, 41.4%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 통일문제에 대해 낮은 관심도를 보인다.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이후 남북경제의 차이로 북한지역을 지원해야 하므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34.3%)보다 그렇지 않다(65.7%)는 의견이 우세하여, 상당수의 청소년이 통일 후 북한지역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일의 진행속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37.4%),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27.4%)와 ‘반드시 이를 필요는 없으며 현재의 상태가 좋다’는 의견(23.9%)이 비슷하게 나온다. 반드시

5) 취합된 설문지중 유효 설문지 1,400부를 표본추출한 설문은 학교별·지역별로 자체분석한 결과이다 (서울/인천/경기/강원 420부, 대전/충청 230부, 광주/전라 290부, 대구/경북 200부, 부산/울산/경남 260부). 또한 조사대상 중 중학생은 829명으로 응답자의 59.2%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생은 571명으로 40.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통일을 이룰 필요는 없고, 현재의 상태가 좋다는 의견이 지난해 35.8%에 비해 23.9%로 줄어 청소년들의 통일의지가 지난해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sup>6)</sup>

또한,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풍요한 선진강국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59.5%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2월 조사와 비교해 볼 때, 50.3%에서 59.5%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통일이후의 미래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견해도 상당수의 응답자(63%)가 ‘북한실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주민을 같은 동포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64.4%가 같은 동포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의 60.8%가 같은 동포로 인식하고, 고등학생의 69.5%가 같은 동포로 생각한다고 응답해 고등학생의 경우가 더 높은 민족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도 우리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65.4%이나,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56.3%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 미사일 무기의 개발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의견도 4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의 안보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 현재보다 규모는 줄이되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이고, 현 수준에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32.1%로 대북지원에 대해 73.6%가 찬성한다. 반면 북한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안되므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20.6%로 나타나 대북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비판적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학생들(81.8%)이 찬성하고, 특히 44.7%의 학생들이 적극 찬성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 6월의 온라인 여론 조사에서도 관문점(18.9%)이나 땅굴(16.6%)등의 분단현장 견학보다는 금강산 방문(48.5%)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이러한 내용에서 보면 학생들의 통일관심을 부족하나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입장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북한 이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첫째, 북한 이해 교육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왜 북한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이해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통일에 앞서 화해와 협력 단계는 우리 남한 일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올바른 북한 이해 교육이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서 제시되

6) 「중·고교생 통일문제 설문조사」, 민주평통, 2000. 12월, 중고생 1,000명 실시. 통일과정의 속도에 대해서, 중학생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35.0%)이 우세한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46.9%)

7)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P&P 리서치, 2002. 6월, 전국 중고생 1,200명



는 목적성을 가져야 한다. 즉 북한 이해교육은 그 수준에 알맞게 유치원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하며,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까지 명실상부한 민족 통일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과거의 향수에 젖은 보수적 인사들에게도 대안 있는 올바른 북한 이해교육의 실시를 통하여 그들의 소외감 및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작업은 실질적인 남북한 갈등 및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북한 이해교육은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힘있는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내용과 북한의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야 한다. 설문에 의하면 북한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는 피상적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즉, 북한에 대한 민족 공조와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 합리성을 갖추는 접근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북한 이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교수들은 한국 사회의 비판적 인식을 통해 민주주의를 달성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편성에 근거하여 접근하는 노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가지는 막연한 북한 인식의 책임은 학교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로 여기서 북한 이해교육은 여유를 가지고 남북 갈등 문제를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보교육은 이제 안보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이해에서 힘, 정의, 평화, 평등, 사랑, 자유를 포괄할 수 있는 안보의 내용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북한 이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북한실상 관련 자료를 순차적인 자료 개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에 대한 관심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므로 북한의 영상자료 및 인쇄자료의 개방 범위를 점차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통일관련기관은 한 단기적 계획과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 특수자료의 공개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국 각지의 시·도 교육청과 교원연수원, 통일전망대, 북한관 등을 “특수자료 취급인가 기관”으로 선정하되, 이들 기관을 거점으로 각급 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통일부가 인정하는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북한의 영상자료와 인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관련 자료를 보는 방법을 개발·보급하면서 이와 함께 자료의 개방 범위를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확대하도록 한다.

셋째, 북한 이해교육의 기본방향은 남북한 상호간의 긍정과 올바른 이해에 달려 있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과 민족적 이해를 확대하는 통일교육은 객관성을 통해 북한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북한 이해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동시에 그 실증적 자료로만 통일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는 민족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아직까지는 남한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가 최고라는 ‘폐쇄적 민족주의’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실상을 이해한다면, 통일 문제에 대한 접근은 남북한 공존을 인정하는 순차성을 밝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상정한 통일교육 보다는 남북한 사회 공존을 인정하는 북한 이해교육이 주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이해교육에서는 분단 과정과 분단 체제의 문제점,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및 이질화 실상, 북한의 현실, 분단국의 통일 사례,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학습자들이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해교육은 능동적인 학습자관, 즉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으로 학교 만들기를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의 통일교육의 생명력은 객관적 사실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과 동시에 능동적이며 현실적인 학습자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학생들을 통일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빈 그릇'으로 상정하여 왔다. 학습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 나름의 지식과 신념을 구성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이 분단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 및 북한 주민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객관적·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객관적 사실의 제시·전달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학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듯이 진행해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 진실한 대화와 문제 해결을 이루어 나가는 학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간에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이러한 지속적인 상호 교류의 과정을 통하여 창조적인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협동적인 기술 및 태도를 익힐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에 대한 연구의 확대는 북한의 생활문화 소재, 교과 확대,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 영역의 확대하여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하여 자연과학,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대학 교육에서 통일교육의 기초적인 소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오기성,1999).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로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생활문화를 소재로 하여 통일교육을 실천한다면 북한 사회를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우리 문화와 관련을 갖고 있는 사회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북한 이해교육은 도덕과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내용을 도덕과에서 더욱 확대하는 한편, 다른 교과와 교육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 이외의 각종 학생활동에서도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이 체험을 통하여 통일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활동을 활용하여 시사반이나 통일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서 통일 관련 주제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단체활동, 현장학습, 유적지 답사와 같은 활동에서도 통일교육과 관련되는 주제를 다루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해교육은 합리적 사고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 문제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민주 사회적 기능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갈등 해결 교육은 순차적인 이해의 단계가 있다.

- 갈등 문제를 주의하여 듣기
- 중립적 표현으로 말하기
- 감정과 경험에 대한 반응 끌어내기를 시도하여 열린 질문을 택하기
- 갈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 합의가 가능한지 알기 위해 들은 것을 분석하기
- 규칙 집행하기
- 인내심 가지기
- 양쪽 당사자 존중하기(정용민, 2001)

이러한 단계 과정은 북한 이해와 민족 공존을 이해해 나가는 것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 이해교육은 참다운 민족 공동체 의식이나 북한 사회 이해라는 측면에서 평화적 갈등중재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 접근하여야 한다. 즉, 북한 이해교육은 학생들의 관심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기를 이제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VI. 결론: 올바른 북한 이해의 진척을 기대하며

우리 사회는 북한이해와 문제 해결에 있어 급변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우편향이었다면 근자에는 좌편향의 입장들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너무 좌우를 극단적으로 인식하고 친미니 반미니 하는 극단이 중심인양 이야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통일교육은 각각의 논리의 탁월한 지향점을 찾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통합적 인식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관심은 통일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기 위해 학생들은 현재의 분단 모순과 문제를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북한 이해에 대해 비판력을 갖고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에서의 북한이해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학생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진척해 나가야 한다.

이 속에서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가지게 되며, 우리 사회와 북한을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온정적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이해교육에서의 평화 적용은 교육 수요자의 안정된 마음과 평온한 자세에서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게 하는 의미를 확대시켜야 한다. 통일에 있어서 북한 이해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 인식들의 폐해를 극복하게 하는 한편, 민족의 미래 지향적 안보 환경 인식과 민족 통합의 실천을 조성하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 과정인 것이다. 이 속에서 학생들은 민족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이 단순히 고비용만을 갖는 고민거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더 많은 평화능력, 인내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결코 일방에 의한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제 한반도는 통일로 가는 평화와 민족 화합을 하는 자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열리면, 북한의 극단적인 세계관도 서서히 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남한이 남북 문제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하에서 북한과 접근하면, 북한은 우리 남한에 대해 그 원칙에 입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의 총체를 통해 남북한은 서로의 변화를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화합적인 통합력을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개선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은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있다는 인식 속에서 진정한 통합을 위한 북한 이해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만길(2000). 「강만길 선생과 함께 생각하는 통일」, 서울: 지영사.
- 강순원(2000). 「평화·인권·교육」,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동규(1999). 「북한학 총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유남(2000). 이익사회로 가는 통일론,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서울: 한울아카데미.
- 류길재(2001). 통일 방안의 새로운 모색, 유호열 외. 「남북 화해와 민족 통일」. 서울: 을유문화사. pp. 83-113.
- 민성길 외(2002). 「탈북자와 통일준비」. 서울: 연세대 출판사.
- 박찬석(2002). 북한의 교육제도와 학교생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편. 「중등 통일교육 직무연수(제2기)」. pp.115-127.
- 서보혁(2003). 민족공조, 한미 동맹 대체할 수 없다. 평화문제연구소 편, 「통일한국」 2003.2월호. pp. 43-4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1999). 「민세 안재홍선집5」. 서울: 지식산업사.
- 오기성(1999). 「남북한문화통합론」. 교육과학사.
- 요한 갈통(2003). 주한미군은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남북이 함께하는 민족 21」. 2003년 4월호. pp. 118-119.
- 유호열 외(2001). 「남북 화해와 민족 통일」. 서울: 을유문화사.
- 이기택 외(1997).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서울: 일신사
- 이영길(2001). 미·중 관계의 파동과 영향. 통일연구원 편. 「통일정책연구」 제10권 1호.
- 이종석(2000). 「다시 쓰는 북한 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 이향규(2001). 통일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자연스런 현상. 평화 문제 연구소. 「통일 한국」 2001년 6월호. pp, 66-68.
- 임혁백·성경룡·송호근·안석교·이영조(2000). 새 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편. 「새천년의 한국과 세계」. 나남출판.
- 정용민(2002). 해와 평화교육의 한반도 통일교육에의 적용가능성 1-미국의 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 「서울통일교육연구회 2002년 겨울세미나 자료집」.
- 조봉암(1957). 평화통일에의 길. 「중앙정치」 10월호 .
- 조한혜정(2000). 「탈분단 시대를 열며」. 서울: 삼인.
- 추병완(2002). 자유주의적 도덕교육 이론의 한계와 공동체주의적 도덕교육 이론의 관점. 정세구 외, 「공동체주의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통일교육원(2001). 『2001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교육원(2002). 『북한 이해』.

통일교육원(2003). 『북한 이해』.

통일부(2000). ‘통일의식 조사에 기초한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 방안’.

통일부(2001). ‘2002년도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

통일부(2003). 북한동향, 주간 제 641호 2003.4.25-2003.5.1

통일원(2000). 『북한 이해』.

Buzan, B, 김태현 역(1995). 『세계화 시대의 국가 안보』 서울: 나남신서 386.

• 논문접수 : 2003년 4월 2일 / 수정본 접수 : 2003년 6월 30일 / 게재 승인 : 2003년 5월 30일

## ABSTRACT

### A study on directions & perspectives of north-korea understanding of unification education

Chan-Seok Park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nification is to contain life style & spiritual civilization in all of field. In order to build basically peaceful atmosphere in korea peninsular, citizens of south-korea have critical thoughts and vision for their future. The unification educators must enhance analysis of north korea for south-north korea reconciliation & cooperation with each other.

Now, the study of north-korea understanding should be based upon the broad cognition on north korean society. Through this study, our students can learn all of the reality about north korean. We, experts of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have concrete ideas for new generation of the peaceful unification. Those ideas are resulted from critical north-korean perspective and opened nationalism.

Key Words : south-north korea reconciliation & cooperation, unification education, the reality about north korean, opened nationalism.